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1
1.		3
2.	·	4
3.	·	12
4.	·	16
5.	,	22
6.		25

: 김동원 02-3299-4227 dongweon@krei.re.kr
: 이성규 () 02-3299-4213 sklee@krei.re.kr

- 「KREI 농정연구속보」는 정책 담당자, 농업인, 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간결히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1

, ‘ , ‘ , ‘ ,

. 2011

‘ , ‘ , .

‘ ’(60.9%,
38%, 34.4%) , 9
40.1%, 44.0%,
36%

‘ , ‘ ,

, 1 1 21.7%
53.2% ‘
(28.3%) .

47.7% 4 23.6%p
, . ‘ ’(30.1%)
.

‘ , 78.9%
‘ ’(75.8%), ‘ ’(68.0%), ‘ ’(61.6%) .
‘ ; ‘ ,
.

2006 13.8%p

2010 18.7%p ,
7.5%p 2010 14.3%p .

63.6% ,
(6.6%) (12.0%)
18.6% .
7.7% .

1).

2010 10 19 11 24 1,500 816 3,800 2,380 64

○ 도시민(면접 1,500명): 18 19, 1:1
 < : 95% ±2.5%p>

○ 농업인(응답자 816명): 1,950
 < , >

○ 전문가(응답자 64명): 학 351
 , (64) 75% 됨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3

2. .

2.1. 도시민 10명 중 3명만 “농업·농촌 문제 관심있다”

88.4% , 앞
40% .
런

10

3 (30.7%)

‘ , 20 (53.8%), 학 (52.6%) 집 , 40

표 1. 도시민의 농업정책과 농업·농촌 문제 관심도

단위: %

		관심층	보통층	무관심층			관심층	보통층	무관심층
전체		30.7	37.1	32.3	전체		30.7	37.1	32.3
성 별	남자	33.3	37.5	29.2	소 득 별	150만 원 미만	42.6	34.8	22.6
	여자	28.1	36.7	35.2		150~250미만	40.2	32.1	27.7
연 령 별	19~29세	11.7	34.5	53.8		250~350미만	29.6	36.9	33.5
	30대	20.7	42.4	36.8		350~450미만	25.5	39.0	35.6
	40대	36.9	39.9	23.2		450만 원 이상	26.5	39.3	34.2
	50대	38.5	33.8	27.7	직 업 별	자영업	39.7	33.3	27.0
	60세 이상	46.4	33.3	20.3		블루칼라	29.8	37.2	32.9
지 역	특/광역시	33.0	37.4	29.7		화이트칼라	26.2	40.5	33.2
	중소도시	28.7	36.8	34.5		전업주부	30.7	37.2	32.1
학 력 별	중졸 이하	47.8	27.5	24.7		학생	10.3	37.1	52.6
	고졸	31.1	36.7	32.1		무직/기타	47.9	33.3	18.8
	대재 이상	22.4	41.7	35.9					

2.2. “우리농업 발전가능성 있다” 4년 전 비해 17.6%p 증가한 53.4%

·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업·농촌 체험을 포함시켜야 한다 (2007 35.8% → 2010 53.4%), ‘농업이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2007 35.2% → 2010 47.6%)

· ‘자녀가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40.9%),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 (47.6%),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30%)

· ‘우리나라 농업이 국제경쟁력이 있다’ (30%), ‘농산물 가격이 공산품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16% → 2010 30%)

· ‘우리 농산물은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 (투표 배양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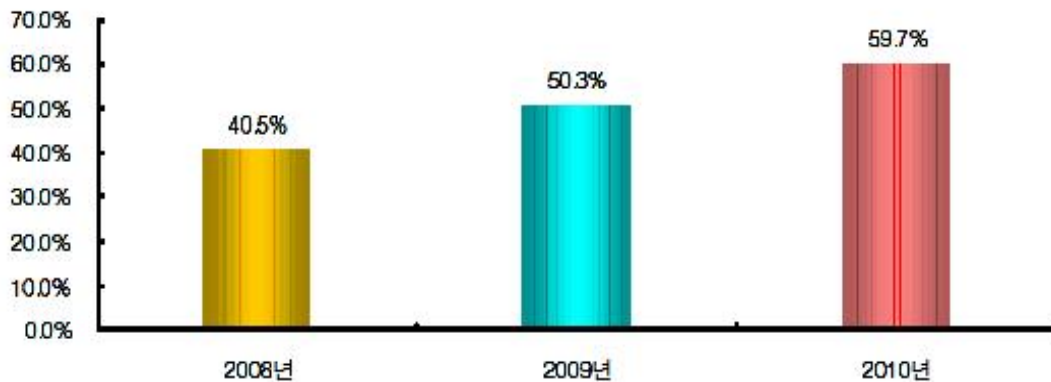
표 2. 농업·농촌관련 의견들에 대한 동의 비율(도시민)

구 분	단위: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업·농촌체험을 포함시켜야 한다	73.9	73.9	87.4	80.9
농업이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79.1	85.9	82.9	71.2
자녀가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45.7	47.9	43.4	40.9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	79.1	83.0	79.7	80.5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35.8	40.4	50.2	53.4
우리나라 농업이 국제경쟁력이 있다	35.2	39.0	46.3	47.6
농산물 가격이 공산품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63.0	68.6	71.3	66.5
우리 농산물은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	86.5	86.7	88.5	83.7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16.0	18.2	22.4	30.0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49.5	54.2	52.3	53.3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소득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77.7	82.1	79.5	80.1
농업이 축소되면 ‘농업의 식량안보 기능’도 약해질 것이다	-	92.6	88.4	80.1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농지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	-	61.1	65.6
농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형 위주의 농업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	-	77.3	70.5

2.3. 농업·농촌의 공익가치에 대한 세금 추가부담 찬성율 59.7%로 상승세

· 외 랑 , 호,
55.9% 3 (2008 63.5%, 2009 58.6%)
·
, ·
59.7% 2008 19.2%p
3
50
건 더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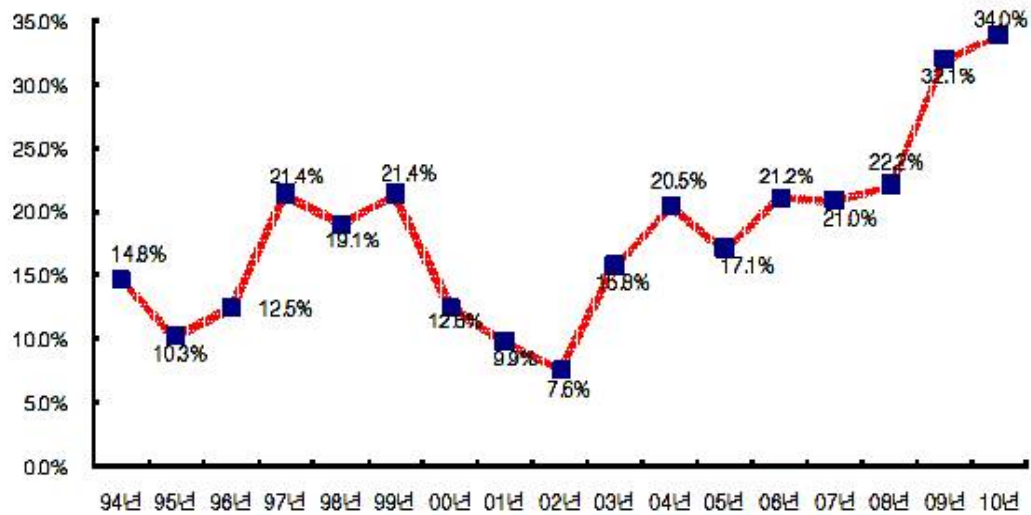
그림 1.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 위한 세금 추가부담 찬성(도시민)



2.4. 농업인 “정년없이 일할 수 있어 좋다” 직업만족도 34%

5 , 2009 처
30% 넘 2010 34% 뚜렷

그림 2. 농업인 직업만족도 변화



‘(23%), ‘
트레 ‘(17.4%)
종
‘(47.9%), ‘
‘(18.2%), ‘ 체 너 힘 ‘(15.2%),
‘(14.8%)

2.5. 농업인의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 소폭 감소

2006 16.5%, 2008 22.7% 던 2.3%p 졌 .

미흡’(22.8%) 열 ‘(35.6%), ‘
넘 큼

표 3.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농업인)

단위: 명, %

구 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만족한다	10	1.2	21	3.2	29	3.2	20	2.5
약간 만족한다	131	15.3	130	19.5	203	22.4	170	20.8
그저 그렇다	348	40.6	266	39.9	346	38.2	313	38.4
약간 불만이다	272	31.7	162	24.3	239	26.4	231	28.3
매우 불만이다	87	10.2	83	12.5	75	8.3	81	9.9
모름/무응답	9	1.1	4	0.6	14	1.6	1	0.1
합계	857	100.0	666	100.0	906	100.0	816	100.0

2.6. 농가 경영위협 요인 ‘생산비 증가’, ‘인력부족’ 순 꼽아

농가 경영위협 요인으로는 ‘생산비 증가’가 28.6%, ‘인력 부족’이 18.4%로 가장 높았으며, ‘시장개방(수입 확대)’이 13.0%, ‘기상조건’이 12.3%, ‘판로확보 어려움’이 9.6%, ‘농업정책 오류’가 7.6%, ‘자금 압박’이 3.6%, ‘조수 피해’가 3.4%, ‘농지부족’이 0.2%로 나타났다.

그림 3. 농가 경영위협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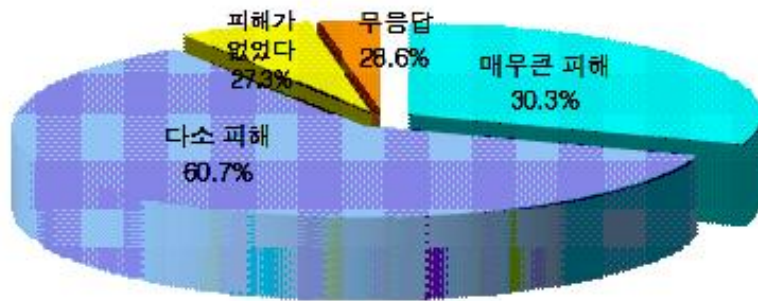


14.3%
 (29.1%) 14.8%p
 (44.5%), (30.0%),
 (10.8%)

2.7. 농가 91% “이상 기후로 올 농사 피해봤다”

91%
 30.3% ‘큰

그림 4.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 피해 여부



(44.8%)
 (23.6%),
 (15.4%)

2.8. 농업·농촌 역할로 ‘자연환경보전’ 기능 중요성 부각

미래 모두
 모두
 미래 모두
 , ‘ 토 형 ’ 뒤

2006 교 ‘ , ‘ 토 형 ’(24.3%) ‘ ’(10.9%)
 2배 , 2010 ‘ 토 형 ’(15.7%)
 ‘ ’(23.0%) .

표 4. 현재와 미래 농업·농촌 역할 인식

단위: %

구 분	2006년				2010년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42.3	36.1	40.7	35.4	42.4	42.0	42.9	23.8	47.7	40.6
국토의 균형발전	24.3	22.8	17.7	16.5	15.7	13.1	16.1	14.1	19.5	17.2
자연환경 보전	10.9	13.7	27.1	25.6	23.0	16.6	25.5	19.7	25.8	22.7
전통문화의 계승	10.8	11.4	3.6	5.3	8.4	12.3	4.5	9.0	-	3.1
관광 및 휴식의 장소	7.2	8.0	3.7	6.4	3.7	9.5	3.4	14.9	1.6	7.0
전원생활의 공간	4.4	7.8	5.8	7.8	6.6	6.4	7.7	18.3	3.1	7.0
기타	0.1	0.1	0.2	0.4	0.1	0.1	-	0.1	-	-
모름/무응답	-	-	1.6	2.7	0.1	-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9. 10년 후 농촌생활에 긍정 전망은 2년전 비해 10%대 증가

교 10 40.6%,
 22.8% . 같 2008
 10.8%p, 6.8%p
 .

히 20%
 함 써 미래
 갖 .

표 5. 현재와 비교한 10년 후 농촌생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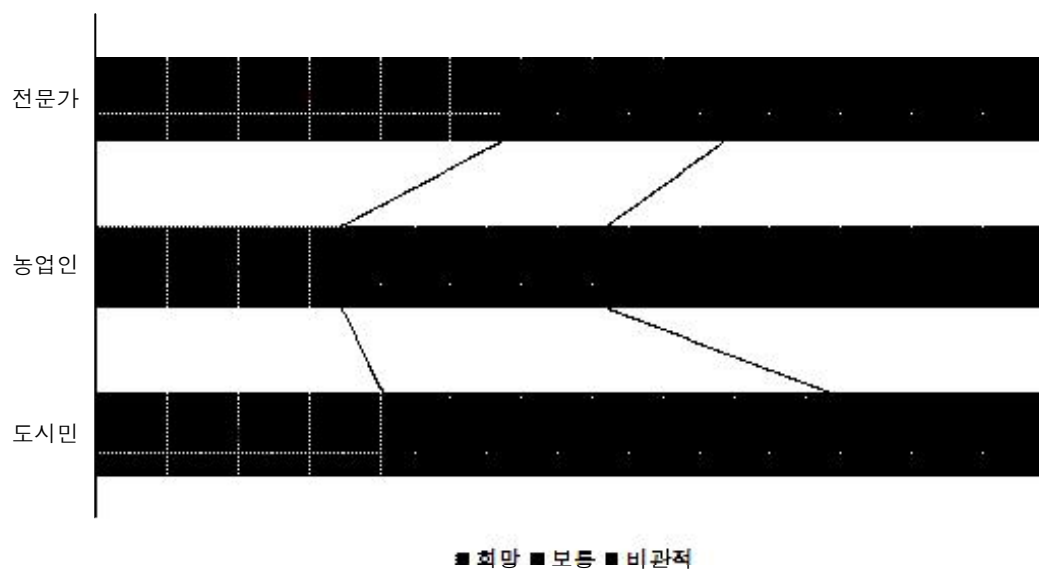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8년		2010년	
	도시민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현재보다 훨씬 살기 좋을 것이다	8.3	9.9	1.3	4.5	2.0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	25.2	19.5	16.7	36.1	22.8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27.0	26.1	26.6	32.6	26.4
현재보다 살기 어려울 것이다	32.3	33.9	40.1	20.6	38.0
현재보다 훨씬 살기 어려울 것이다	7.2	10.5	14.4	6.2	10.7
모름/무응답	0.1	-	0.9	-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2.10. '10년 후 한국농업 희망적' 전문가 42.2%, 농업인 25.5%

10년 뒤
2),
16.7%p
났 .

그림 5. 향후 10년 한국농업의 미래 전망



2) 2009 . 처 를 (16.8%)
21.9% .

3. .

3.1. 2010년 농정현안 중 ‘식품산업 육성’ 가장 큰 성과

2010

‘ , ‘ ,
 , ‘ , ‘ , ‘ ,
 .

표 6. 2010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조치에 대한 평가

단위: %

문항	성과가 있음		그저 그렇다		성과가 없음	
	농업인	전문가	농업인	전문가	농업인	전문가
농업협동조합 개혁	19.5	10.9	33.5	34.4	35.3	54.6
쌀 재고 증가 및 가격 하락 대책	5.5	9.4	16.4	25.0	67.0	65.6
한-미, 한-중, 한-EU FTA 대응	15.1	17.2	36.8	46.9	34.9	35.9
한식 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	30.3	46.9	37.6	39.1	18.9	14.1
해외 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 확보	13.4	14.1	45.2	46.9	27.6	39.1
농식품 수출 확대	27.0	37.5	32.8	43.7	26.7	18.6
농산물 수급(채소류)안정 대책	13.4	7.8	23.5	39.1	50.7	53.1

3.2. 2011년 중점추진 정책 분야로 ‘소득안정’ 꼽아

2011

‘ , ‘ ,
 , 밖 ‘ 중 ’ ‘FTA
 , ‘ ,
 .
 , ‘ 외 ’ ,
 ,
 집 같 립

표 7. 2011년 정부가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중복)

단위: %

구 분	농업인	전문가
쌀산업 종합대책	18.1	9.4
한-EU, 한-중 FTA 대응	8.7	18.1
유통개혁 등 농산물값 안정대책	25.0	21.3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	28.4	22.8
농업협동조합 개혁 마무리	6.7	11.0
농어촌 복지 확대	6.0	5.5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2.4	3.9
귀농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2.2	4.7
한식 세계화 등 식품정책	1.8	1.6
해외농업 개발	0.6	1.6
기타	0.1	1.6
합계	100.0	100.0

3.3. 중장기 농업·농촌 유지 위해 ‘소득안정과’ ‘후계인력 육성’

‘(43.8%, 53.8%) , ‘
 ’(14.3%) , ‘ ’(13.6%) .
 , ‘ ’(25.0%)
 , ‘ , ‘ , 21.9%

표 8. 중장기 농업·농촌의 유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

단위: %

구 분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후계농업인 육성	11.5	13.6	25.0
농가소득 안정	43.8	53.8	21.9
적극적인 귀농지원	9.8	3.4	1.6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확대	11.9	5.8	6.3
농촌지역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	14.3	12.3	21.9
기술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6.5	6.0	12.5
외부 자본의 농업분야 투자	1.7	3.8	7.8
기타/모름/무응답	0.5	1.4	3.1
합계	100.0	100.0	100.0

3.4. 재고쌀 해소 대책으로 ‘쌀 소비촉진과 가공용 공급확대’ 꼽아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에서 쌀 소비촉진과 가공용 공급확대 대책을 가장 많이 꼽았다. (도시민 60.9%, 농업인 38%, 전문가 34.4%)

이와 함께, ‘작물 다듬기’도 31.7%, 2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9. 재고쌀 문제 해소대책에 대한 견해

단위: %

구 분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사료작물 등 작목전환 유도해 생산량 조절	15.1	31.7	23.4
쌀 소비촉진과 가공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조절	60.9	38.0	34.4
쌀 조기 관세화 수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	14.1	7.5	23.4
대북 지원 등 원조용으로 소진	9.5	19.1	17.2
기타/ 모름/무응답	0.4	3.7	1.6
합계	100.0	100.0	100.0

도시민은 ‘작물 다듬기’ 22.7%, ‘작물 다듬기’ 32.5%, ‘작물 다듬기’ 51.6%로, 농업인은 ‘작물 다듬기’ 39.3%, ‘작물 다듬기’ 10.1%, ‘작물 다듬기’ 14.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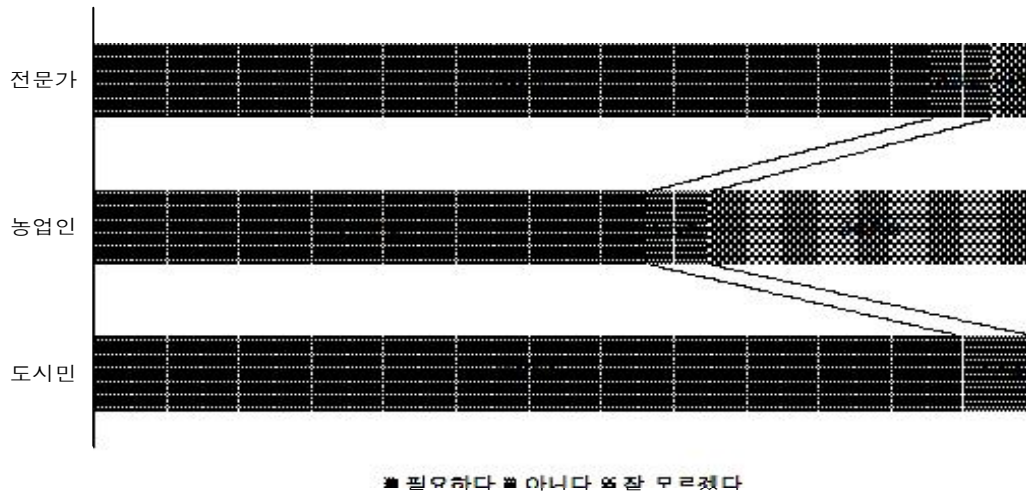
전문가는 ‘작물 다듬기’ 40.1%, ‘작물 다듬기’ 44%, ‘작물 다듬기’ 36%로 나타났다.

3.5. 농업부문 ‘녹색성장’ 농업인 인식 상대적 부족

‘녹색성장’에 대해 농업인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도시민 92.3%, 농업인 89.6%, 전문가 58.7%)

‘잘 모르겠 ’ 30.3% 녹색

그림 6. 농업부문에 ‘녹색성장’의 필요성 인식



3.6. ‘녹색성장’ 정책이 미래 농업에 미칠 영향 ‘긍정’ 전망

‘녹색 ’ 미래 (77.4%), (76.6%), (64.1%) 녹색 령

표 10. ‘녹색성장’ 정책 우리나라의 미래농업 발전에 미칠 기여도 인식

단위: %

구분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매우 크게 기여할 것	13.7	14.3	21.9
어느 정도 기여할 것	63.7	49.8	54.7
보통	16.3	16.1	15.6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	5.4	13.2	6.3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	0.8	0.9	1.6
무응답/모름	-	5.8	-
합계	100.0	100.0	100.0

.

人

51



50

—

숫 냈 .

‘ , ‘체
, 체 싶 ‘ , ‘테마마 체
, ‘ , .

표 11. 농촌관광의 만족도(도시민)

단위: %

구 분	2007년	2010년
매우 만족	5.0	1.2
대체로 만족	40.9	52.0
보통	43.4	40.0
대체로 불만	9.1	6.2
매우 불만	1.6	0.5
합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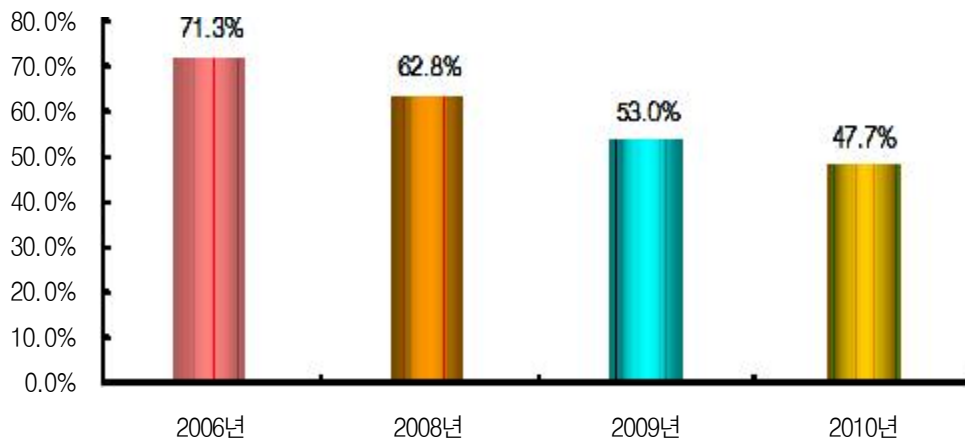
4.3. 도시민 귀농·귀촌 의향 4년새 23.6%p 감소

되 싶
2006 71.3% 줄 47.7%
4 23.6%p .

. ‘ , 젊
, ‘ , 50
/ (66.7%) .

. 62% ‘ 체 획 ,
, ‘10 ’(17.9%), ‘10 ’(13.7%), ‘5
, ‘3 ’(1.4%) 천

그림 8.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변화



4.4. 귀농·귀촌 이유로 61%가 ‘건강’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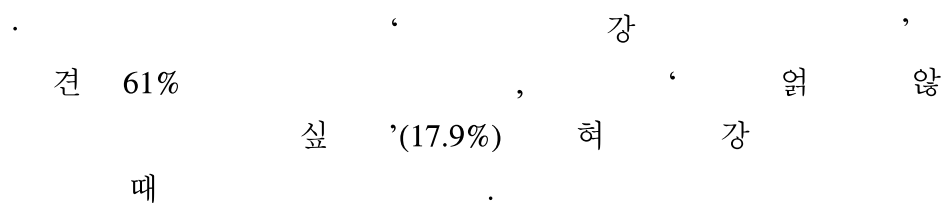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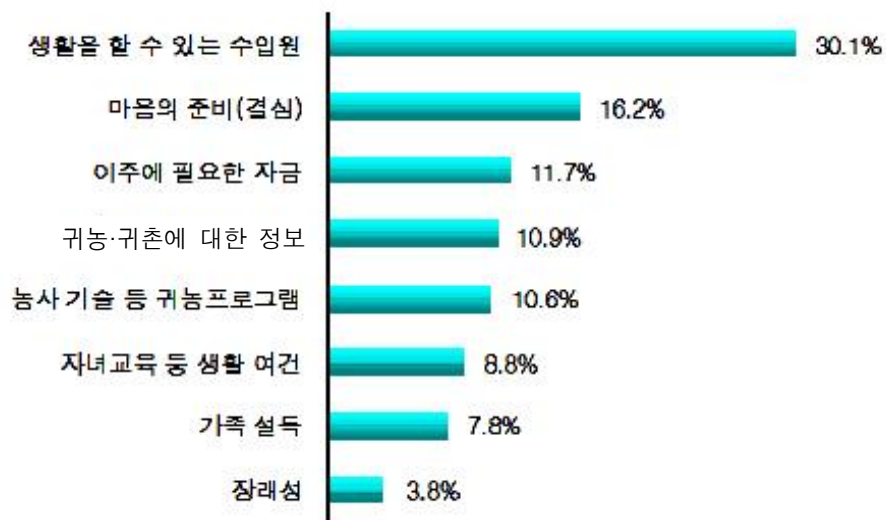
그림 9. 도시민이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이유



· ‘ (30.1%)

· ‘마 (16.2%), ‘ (11.7%), ‘ (10.9%), ‘ 술 프 램’(10.6%)

그림 10. 귀농·귀촌에 필요한 조건



4.5. 국산농산물 경쟁력 ‘한우-쌀-돼지고기-과일-화훼’ 순 인식

5
 중 , ‘ ’(39.5% +
 39.3%) 78.9% , 히 ‘
 , 39.5%
 ‘ ’(75.8%), ‘ ’(68.0%), ‘ ’(61.6%) , ‘
 화훼’ 45.9%

표 12. 국산농축산물의 경쟁력 인식 정도

단위: %

문항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축산물	쌀	25.7	50.1	16.5	6.9	0.9
	한우	39.5	39.3	14.9	5.1	1.1
	돼지고기	20.3	47.7	25.2	5.9	0.9
과일		14.9	46.7	29.9	7.6	0.9
화훼		10.7	35.2	38.4	13.3	2.4

4.6. 식품 구매 시 채소 ‘안전성’, 육류·곡물 ‘원산지’ 중시

외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37.3%)는 국내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54.9%, 46.5%)보다 적다. 그러나 국내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54.9%, 46.5%)는 외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37.3%)보다 많다. 이는 국내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가 외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보다 많음을 시사한다.

육류·곡물의 원산지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32.4%, 32.5%)는 국내산 식품의 원산지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40.8%, 39.2%, 38.5%)보다 적다. 그러나 국내산 식품의 원산지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40.8%, 39.2%, 38.5%)는 외국산 식품의 원산지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32.4%, 32.5%)보다 많다. 이는 국내산 식품의 원산지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가 외국산 식품의 원산지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보다 많음을 시사한다.

채소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34.5%, 34.7%, 33.6%)는 국내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31.5%, 35.7%)보다 적다. 그러나 국내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31.5%, 35.7%)는 외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34.5%, 34.7%, 33.6%)보다 많다. 이는 국내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가 외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보다 많음을 시사한다.

표 13.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우선 고려하는 점(도시민)

단위: %

품목	가격	안전성	품질(맛)	브랜드	원산지	영양
채소	12.6	37.3	29.1	2.4	16.0	2.7
육류	6.1	27.1	29.6	5.8	30.8	0.6
곡물	8.7	22.7	29.4	7.1	30.9	1.3
과일	5.7	18.9	54.9	4.9	13.3	2.3
수산물	5.1	26.5	32.0	4.0	29.2	3.3
외식	14.4	17.1	46.5	10.1	4.9	7.1

4.7. 도시민 45.1% “가격이 비싸도 국산농산물 사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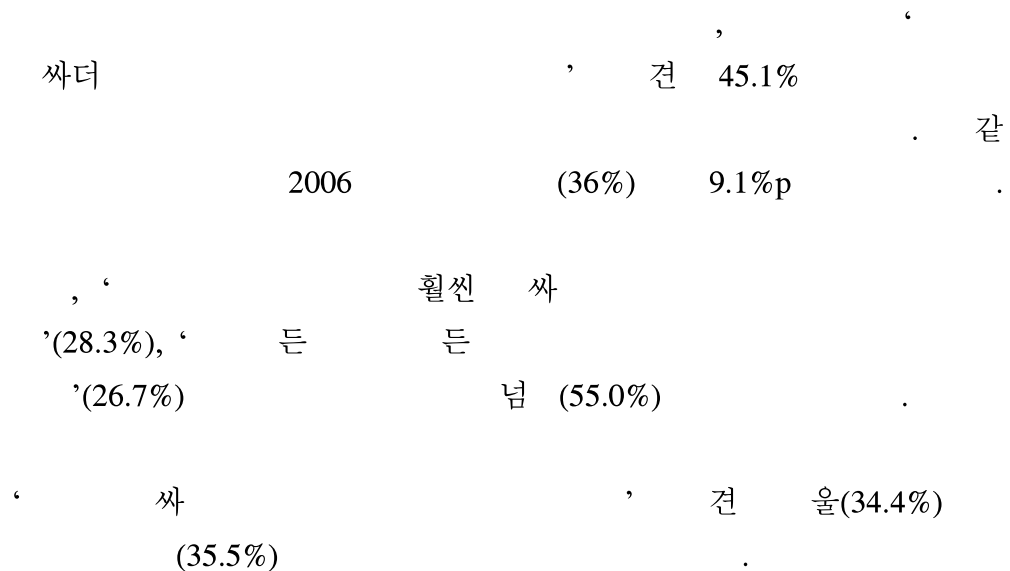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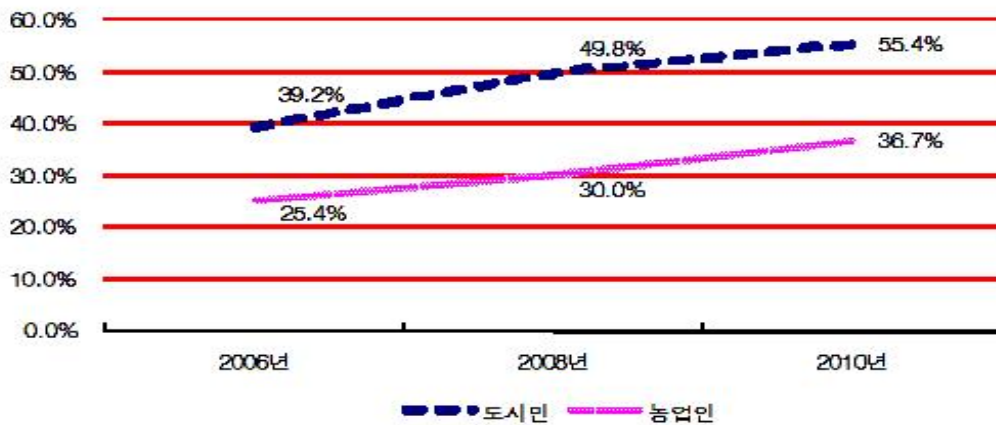
그림 11. 시장개방 확대 시 우리 농산물 구입 의향(도시민)

5.

5.1. 거주환경 만족도 도시민-농업인 격차 18.7%로 확대

모두
 2006 39.2%, 2008 49.8%,
 2010 55.4% 집
 .
 같 25.4%, 30%, 36.8% 집 . 양 모두
 2009 폭 락 .
 , 두 커져
 2006 13.8%p 2010 18.7%p
 .

그림 12. 현 거주지 주거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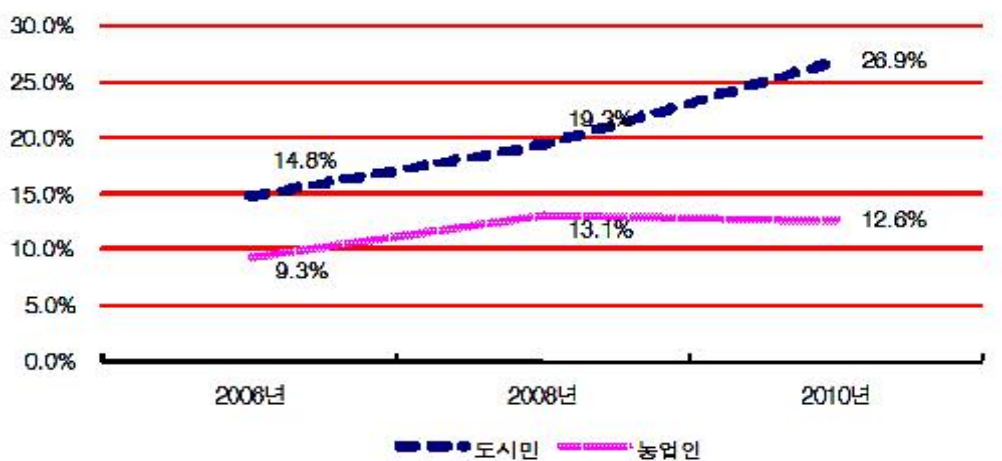


5.2. 삶의 질 만족도 농업인과 도시민 격차 14.3%p로 커져

2006 14.8%, 2008 19.3%, 2010 26.9% , 같

9.3%, 13.1%, 12.6% 집
 , 체 .
 (2009) 교 22.6%, 15.1%
 7.5%p 2010 두 배 14.3%p
 졌 .

그림 13.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



5.3. 농업인 거주지역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25%

. . . 애
 10 4 (25%)
 ,
 않 30.4% .

표 14. 거주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농업인)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	10	1.2
대체로 만족	194	23.8
보통	329	40.3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198	24.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0	6.1
무응답/모름	35	4.3
합계	816	100.0

5.4. 농업인 18.6% ‘노후준비 없다’

	63.6%	2006
(61.5%)	2.1%p	.
2%	,	같
		11.4%
.		
	준	(6.6%)
		(12%)
18.6%	.	

표 15.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주체

단위: %

구분	2006년	2010년
본인 스스로 마련	61.5	63.6
자녀 및 가족들이 준비	2.1	2.0
본인과 자녀, 가족들이 같이 준비	10.6	11.4
사회보장제도에 의존	7.9	6.6
아무런 준비도 기대도 없다	15.1	12.0
무응답/모름	2.9	4.4
합계	100.0	100.0

5.5. 농업인 노후대책 ‘충분한 편’ 7.7% 그쳐

7.7% ,
() 49.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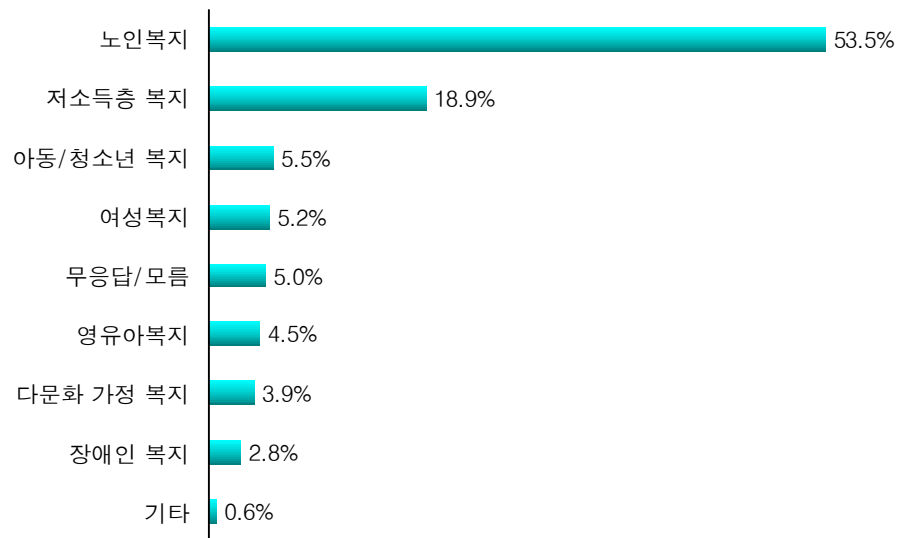
그림 14. 현재 노후대책 수준에 대한 인식



5.6. 농업인 가장 필요한 복지대책으로 53.5%가 ‘노인복지’ 꼽아

뒤
(53.5%) ‘
, ‘저’(18.9%)

그림 15.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복지 분야 인식



6.

히
40%
, 10 3 (30.7%)
히 젊
겠 .

55.9% 3 째
홍

마련

(28.6%) , 14.8%p
 14.3% 양
 .

91% 30.3%
 ‘큰 ’ 함 써 따른
 .
 ‘ 술 ’, ‘ 작 ’
 .

2010
 ‘ , ‘ ,
 , ‘ , ‘ ,
 겠 .

‘녹색 ’
 , 미래
 녹색
 홍 판 .

47.7% 4 23.6%p
 락 괴
 , .

18.6%

,
 7.7% 처 교
 .

히

락

체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속보」 발행 목록

2010년

67권	·	2010	(,)
66권		탄 배 권 래	태 (창길, 윤형, 학)
65권	쇠	따른	(덕, 형 ,)
64권			런 검토 (송 호)

2009년

63권	·	2009	(,)
62권	2009	따른	(호, 창)
61권			(호)
60권	권교체		(태곤)
59권		쇠	(덕, , 형)
58권	외 친	태	(창길, 학 ,)
57권		2009~2019	(, 미)
56권	림	태	()
55권	캐 쇠		(덕, , 형)
54권			(창길,)
53권		미	(태훈, 배)

2008년

52권	·	2008	(,)
51권	미 ‘2008	법’	미 ()
50권	병	루엔	측 (병 , 형 , 황윤 ,)
49권	미 쇠		(덕,)
48권	병	루엔 양	미 (덕, 병 , 형)
47권		양돈 미	(덕,)
46권		미	(미, 학 , 림, 윤)
45권	·		(,)

2007년

44권		양돈 미	(덕, ,)
43권	철		(, 송)
42권	외		(, 황윤)

- 41권 외 친 태 (창길, 태 ,)
 40권 (덕, 송 호, ,)
 39권 . (,)
 38권 미 2007 법 (임송)
 37권 미 (창길, 태 ,)
 36권 법 태 (, 두)

2006년

- 35권 양극 태 (, 마)
 34권 DDA 미 (임송)
 33권 락 미 (병률, 배 , , 호)
 32권 외 친 태 (창길, 태)
 31권 미 FTA 양 (, 녕,)
 30권 ·칠레 FTA 행 2 ()

2005년

- 29권 (송 ,)
 28권 북 (훈)
 27권 (규)
 26권 친 태 (강창 , 옥)
 25권 미 (배 , 섭)
 24권 . 법 배 (호)
 23권 ·칠레 FTA 행 1 (, 녕)
 22권 (,)
 21권 친 태 (, 미)
 20권 독 프랑 체 ()
 19권 2005 북 (권태)
 18권 , (권)

2004년

- 17권 (두, 송미 , , 흥)
 16권 . 양 (규)
 15권 2004 (,)
 14권 건 (임송)
 13권 미 (, 배 , 학)
 12권 : (호)

- 11권 미 병 쇠 (열, 송 호, 철)
- 10권 골 초 (임송 , 교, , 임)
- 9권 규모 (호)
- 8권 (태곤, 길)
- 7권 친 행 법 교 (창길, 태)
- 6권 병 미친 (열, 송 , 형)

2003년

- 5권 처 (임,)
- 4권 (, 황)
- 3권 미 EU . (태곤)
- 2권 령 2003 (임송)
- 1권 ()